

	독 일 (프 랑 크 푸 르 트) 사 무 소 해 외 동 향 보 고 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훈희 소장
		일 시	2024. 5.

CEPA Insight

- 독일의 과도한 규제와 관료주의에 대한 대내외 비판론적 시각 부각
- 동물유래성분 수입 불가 및 채식시장에 맞춘 식품기업 진출전략 필요

1]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 기업의 경쟁력 약화세

- 최근 ifo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독일 산업의 경쟁력은 2년간 악화
- EU에서 獨기업들은 '22. 3분기부터 경쟁 우위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'22. 1분기에 경쟁력 약화가 시작
- 비즈니스 로비 단체들은 투자지로서 독일에 비용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법인세 개혁, 관료주의 개선 등을 요구

※ 출처 : Handelsblatt (<https://www.handelsblatt.com/politik/konjunktur/weltmaerkte-ifo-deutsche-firmen-fallen-im-internationalen-wettbewerb-zurueck/100038837.html>)

2] 독일 전기세, 유럽 내 최고

- 연방통계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, 독일의 전기요금은 2023년 하반기 기준 1Kwh당 약 42센트로 EU 내 최고 수준이며, EU 평균인 28.5센트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동 금액은 2023년 상반기보다 소폭 감소, 2022년보다는 훨씬 높음
- 독일에 이어 전기요금이 높은 회원국은 아일랜드(37.46센트), 이탈리아 (36.19센트) 등이며, 저렴한 국가는 헝가리(11.09센트), 노르웨이(12.11센트) 등
- 정부에 해당 자료를 요구한 바겐크네히트 의원은 높은 전기료가 독일의 산업입지를 위협하고 있다며,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이 실패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

※ 출처 : RND (<https://www.rnd.de/politik/strompreise-sind-in-deutschland-im-europa-vergleich-am-hoechsten-GNCWJG7HVVHKHKPU5N6DINDY5E.html>)

③ 솔츠 총리, 최저임금 15유로 인상에 찬성

- 솔츠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법정 최저임금을 15유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며, 지난 최저임금 결정 시 사측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전통을 깬다고 비판
- 2023. 6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 설립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만장일치가 아니라 노측 위원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측 위원과 위원장의 찬성으로 내년(12.41유로)과 후년(12.82유로) 최저임금안 결정

※ 출처 : Spiegel (<https://www.spiegel.de/wirtschaft/soziales/mindestlohn-olaf-scholz-fordert-erhoehung-auf-15-euro-a-1e25c3a4-b5e4-4c0f-9a19-37f52954ed9d>)

④ BASF, 독일 공장은 폐쇄, 중국 공장은 확장

- 세계 최대 화학기업 BASF는 Ludwigshafen(루드비히스하펜) 공장 폐쇄
 - BASF는 '24년 독일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흑자를 기록했으나, 고비용,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독일의 시스템은 수익성이 없다고 분석
 - 폐쇄 공장에는 '24년 기준 약 38,700명이 고용되어 있으며, 직원의 대다수는 생산 및 기술 분야의 다른 위치에 배치될 것이라고 발표
- 반면, BASF는 중국에 막대한 투자 중으로 중국 남부 Zhanjiang(잔장) BASF 화학원료공장 건설에 100억 유로 투자 중('30년 완공 예정)
 - BASF는 과거 강제노동 의혹이 있는 신장지역에서 사업을 영위 했고, 대중의 비난이 커지자 해당 지역에서 철수했으나 다른 사업은 지속 중

※ 출처 : Tagesschau (<https://www.tagesschau.de/wirtschaft/unternehmen/basf-chemieindustrie-werte-verantwortung-100.html>)

⑤ 독일 2위 유통망 레베(Rewe), 비건 슈퍼마켓 시범 개점

- Rewe는 베를린에 비건(완전 채식) 슈퍼마켓을 파일럿 형식으로 개점
 - 비건제품 시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플렉시테리언* 수요 파악 목적
- * 식물성 음식을 주로 섭취하지만, 때에 따라 고기류도 먹는 낮은 단계의 채식주의자
- 독일 내 비건 인구는 약 150만 명에 달하며,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7%가 일주일에 여러 번 동물성 제품을 대체 제품으로 교체하며, 54%는 호기심 때문에 비건 제품을 선택한다고 응답

※ 출처 : Tagesschau (<https://www.tagesschau.de/wirtschaft/verbraucher/supermarkt-vegan-100.html>)